

원희룡 장관, “건설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”

- 8일 오전 건설현장 휴게시설 설치현황 점검 -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8일(목) 오전 10시부터 서울 구로에 위치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현황을 점검하고, 발주청·건설사에 양질의 휴게시설을 충분하게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원 장관은 해당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휴게실, 화장실, 탈의실 등 휴게시설과 편의시설을 점검한 이후,
 -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해당 현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로부터 애로 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.
- 간담회에서 원 장관은 “건설 현장은 대부분의 작업이 야외에서 이뤄지고 업무 강도도 높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한다”라고 강조하였다.
 - 이어서, “일부 건설 현장에서는 선풍기를 켜도 한여름에는 뜨거운 바람만 맞게 되는 열악한 공간에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계신다는 현실을 전해 들었다”라며,
 - “겨우 몇 명만 들어갈 수 있는 협소한 면적에 구색조차 갖추지 못한 공간을 만들어두고, 태양을 피해 열사병 정도 방지하자는 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쉼터라고 할 수 있겠는가”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.
- 아울러 원 장관은 “한여름 피약별을 피해 시원한 그늘에서의 한 줌 휴식의 간절함은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일해야 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매우 클 것”이라며,
 - “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발주 현장부터 쾌적한 휴게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챙겨나갈 것”이라고 약속하였다.

2023. 6. 8.

국토교통부 대변인